

송파교회 이야기 · 제 1 부

믿음의 뿌리, 피터스

드니프로강가의 한 소년이
머나먼 조선 땅 송파에 심은 씨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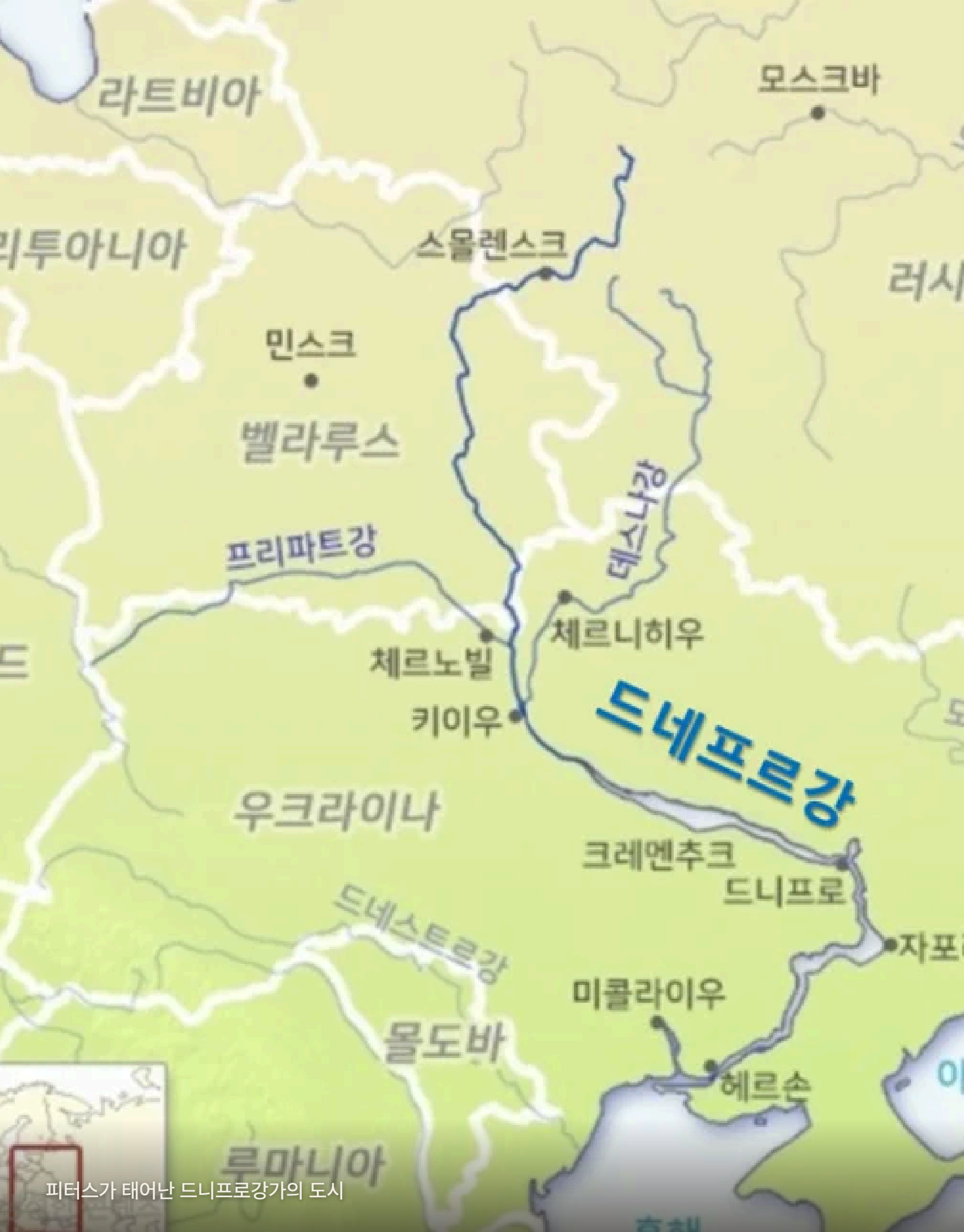
1871 — 1906



프롤로그



옛날 옛적,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
머나먼 유럽 땅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훗날 조선 땅 송파에 믿음의 씨앗을 심게 될 줄은,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1 1871년

드니프로강가의 소년

옛날 옛적, 저 멀리 러시아 예카테리노슬라브(현재의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강이 흐르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한 유대인 가정에서 1871년,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아이삭 프롬킨. 훗날 조선 땅에서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아이삭의 집안은 정통 유대교를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러시아어와 이디시어를 썼고, 학교에서는 독일어와 라틴어, 그리스어를 배웠습니다. 사립학교에서는 히브리어까지 익혔지요. 어린 아이삭은 총명한 아이였고,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러시아 제국에서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의과대학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삭은 의사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피터스가 태어난 드니프로강가의 도시

2 1894년

고향을 떠나다

세월이 흘러 아이삭은 군복무를 마친 스물세 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차별이 가득한 고향에서는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삭은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가보자.**”

아이삭은 짐을 꾸려 고향 드니프로를 떠났습니다. 그의 여정은 상상 이상으로 길었습니다. 이집트를 지나고, 인도를 지나고, 싱가포르를 지났습니다. 낯선 땅을 떠도는 동안 아이삭은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개신교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진실한 예배와 선교 활동을 지켜보며, 아이삭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동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긴 여정 끝에, 아이삭은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을 떠나기 직전, 23세의 피터스





프룸킨을 개종시키고 세례를 준 알버투스 피터스 목사부부

3 1895년 4월

새 이름을 얻다

나가사키에 머무는 동안, 아이삭은 미국인 선교사를 만나 약 2주간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유대교 가정에서 나고 자란 아이삭에게 성경 공부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삭은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새 이름을 얻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아이삭은 자신에게 세례를 준 미국인 선교사의 이름을 따서 새 이름을 지었습니다.

—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

드니프로강가의 소년 아이삭 프룸킨은 이제 피터스라는 새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새 이름이 훗날 송파라는 작은 마을의 역사에 깊이 새겨지게 될 줄은 말입니다.

Certificate of Baptism

This certifies that on the 6th of April 1895 a Jew, Aisik Frumkin, presented himself to me and asked to be instructed in the truths of the Christian faith. For the space of two weeks he has been so instructed by me, and finally, being satisfied that he is acquainted with and accepts the principal doctrines of our religion, I have this day received him by baptism into the Christian Church, and have administered to him the Holy Sacraments of the Lord's Supper.

His name was heretofore Aisik Frumkin. The name bestowed upon him in baptism is Alexander Albert Pieters.

This was done in the presence of the subscribed witnesses.

Albertus Pieters
Ordained Minister of the
Reformed Protestant Dutch Church of America

Witnessed by,
Sarah M. Couch
M. Estelle Duryea
H. Loomis

Nagasaki, Japan, April 19, 18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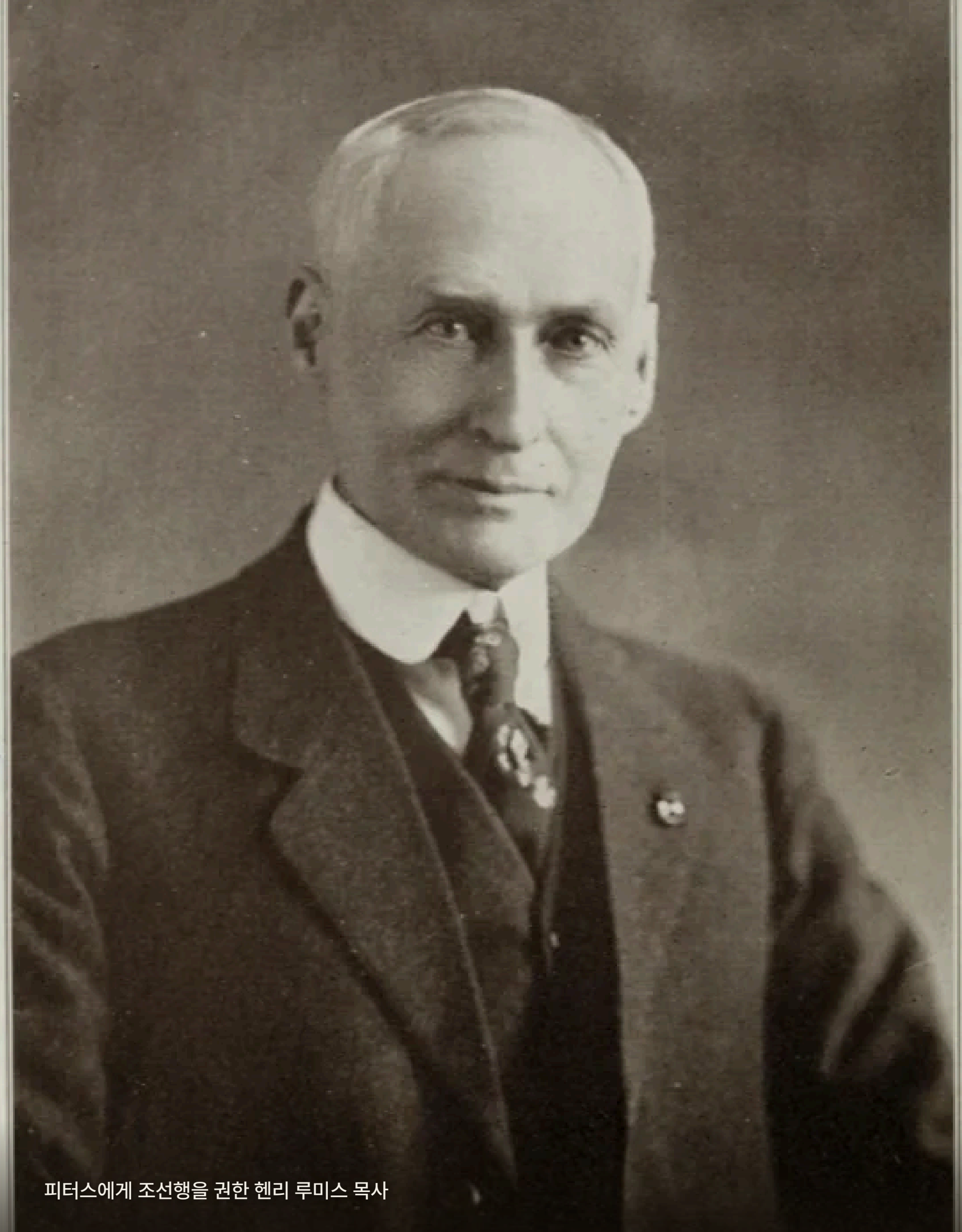
피터스의 세례증명서 내용

조선 땅을 밟다

나가사키에서 피터스는 미국성서공회의 헨리 루미스 목사를 만났습니다. 루미스 목사는 뜻밖의 권유를 했습니다. “조선으로 가보지 않겠나?”

피터스는 그 권유를 받아들여 배를 타고 조선의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증기선을 타고 제물포까지 간 뒤, 마침내 한양(서울)에 이르렀습니다. 낯선 땅, 낯선 말, 낯선 얼굴들. 하지만 피터스는 이곳에서 ‘권서인’—성경을 짊어지고 다니며 전하는 사람—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피터스는 언어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조선에 도착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한국어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여러 언어를 배웠던 그 경험이, 이렇게 조선 땅에서 빛을 발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피터스에게 조선행을 권한 헨리 루미스 목사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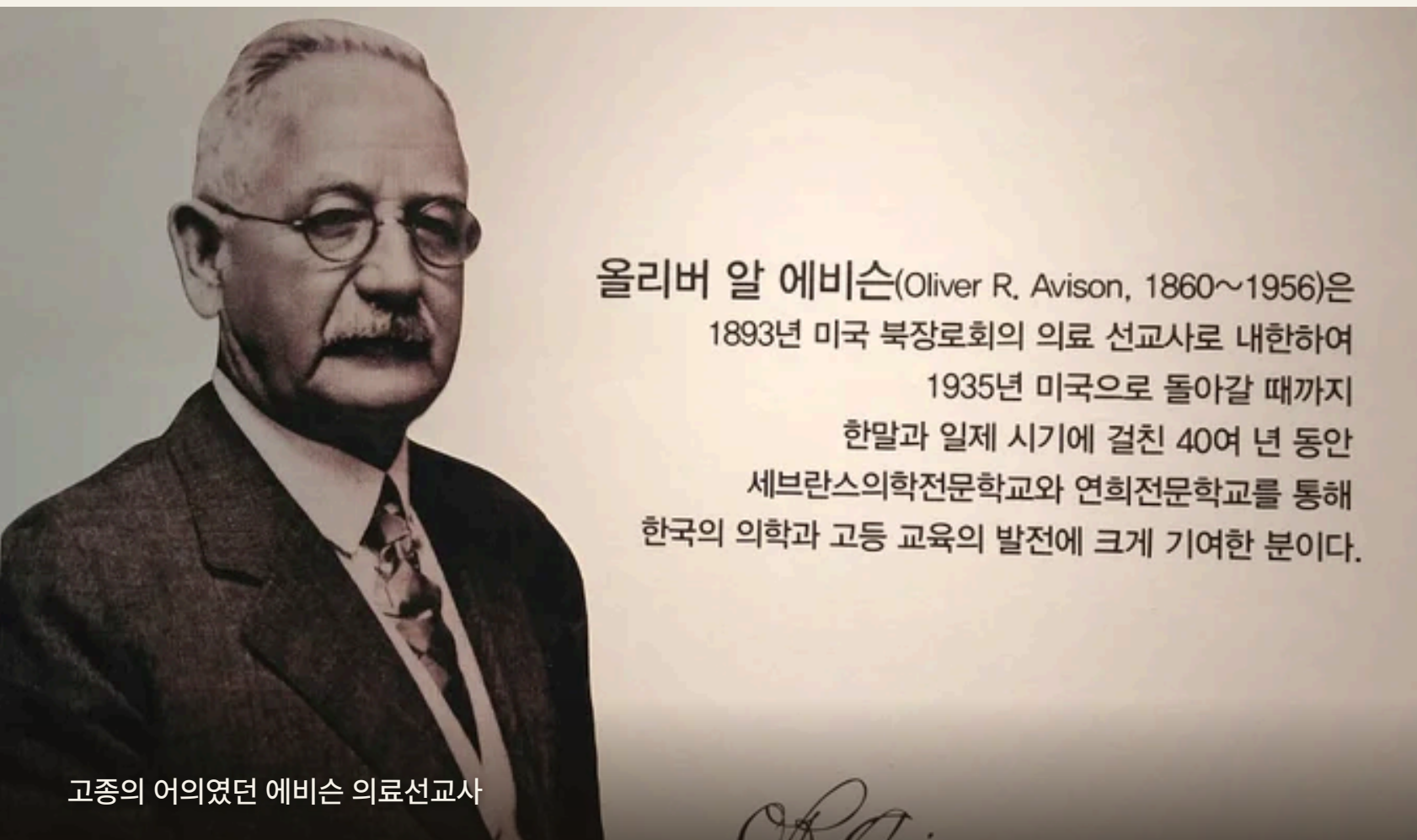
5 1895년 7월

콜레라와 하얀 가운

조선에 도착한 지 두 달쯤 지났을 무렵, 무서운 병이 한양을 덮쳤습니다. 바로 콜레라였습니다. 거리마다 아픈 사람들의 신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조선의 어의였던 에비슨 박사가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훗날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피터스는 주저 없이 제중원으로 달려가 자원간호사로 나섰습니다. 선교사도, 의사도 아니었지만, 아픈 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밤낮없이 환자들을 돌보며, 피터스는 조선 사람들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종의 어의였던 에비슨 의료선교사

올리버 알 에비슨(Oliver R. Avison, 1860~1956)은 1893년 미국 북장로회의 의료 선교사로 내한하여 1935년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한말과 일제 시기에 걸친 40여 년 동안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를 통해 한국의 의학과 고등 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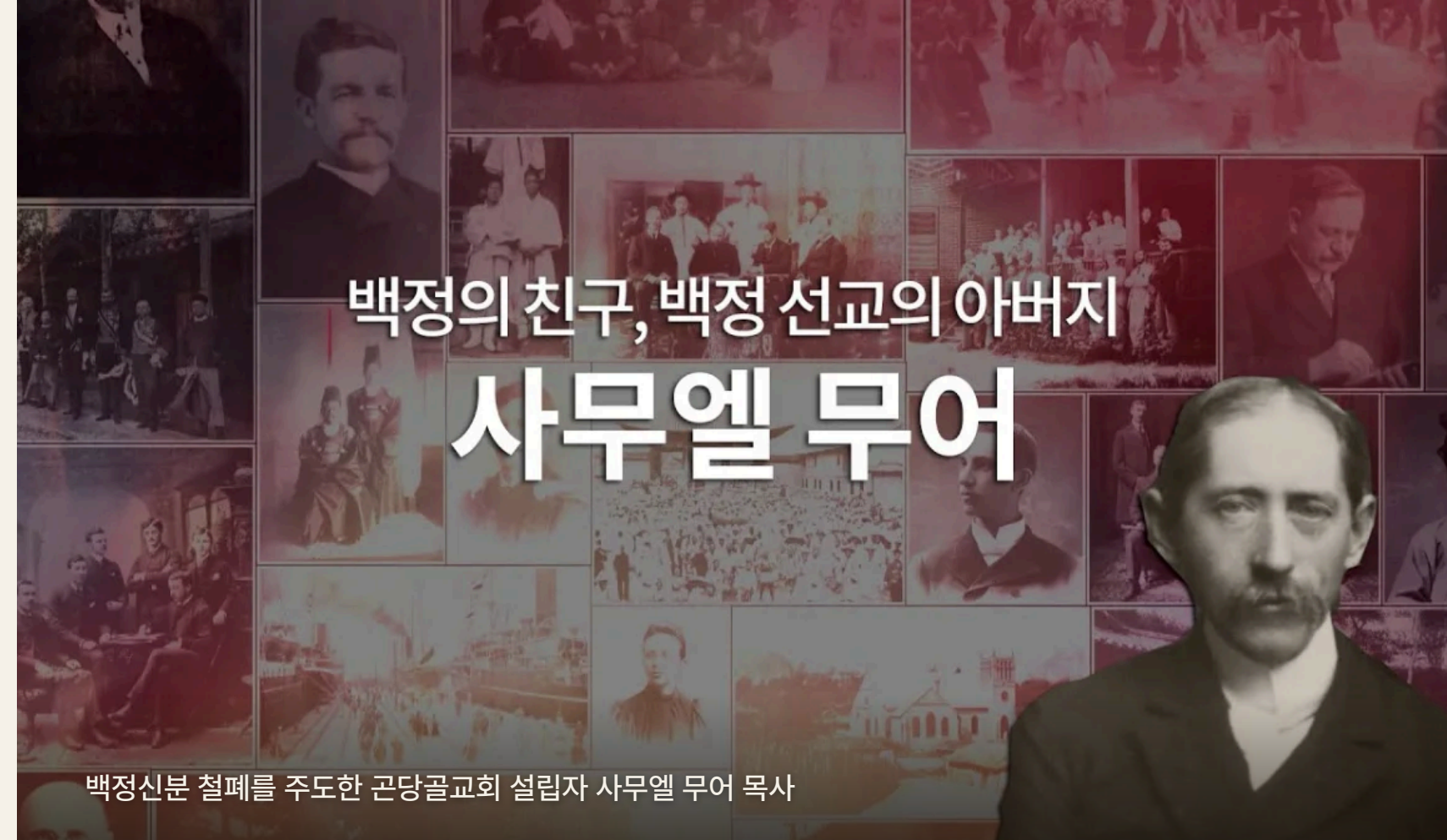
6 1895년 9월

광주 들녘에 뿌려진 씨앗

콜레라의 소동이 가라앉을 무렵, 피터스는 곤당골 교회(현재의 승동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 사무엘 무어(한국명 모삼열) 선교사와 함께 지방 곳곳을 다니며 전도 활동과 권서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 피터스는 제중원 교회(오늘날의 남대문교회)의 조사였던 김덕윤, 유흥렬과 뜻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경기도 광주군 일대—바로 오늘날의 송파 지역—를 걸어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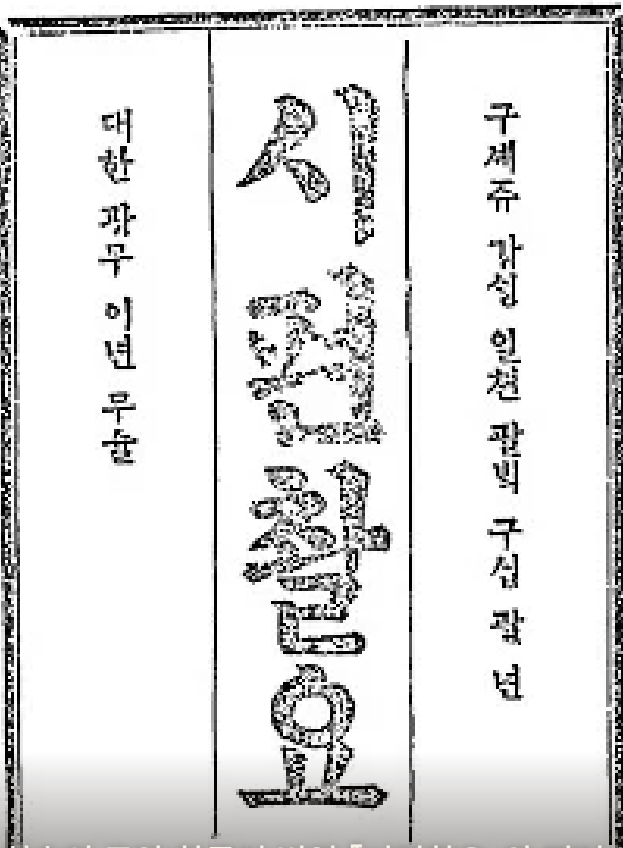
아직 교회도, 예배당도 없던 그 시절. 하지만 세 사람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훗날 크게 자라날 믿음의 씨앗이 하나둘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송파에도, 바로 그 씨앗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백정신분 철폐를 주도한 곤당골교회 설립자 사무엘 무어 목사



현재의 승동교회 전경(예 곤당골교회)



최초의 구약 한국어 번역 『시편찰요』와 피터스가 작사한 찬송가

383 (번호 433)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민트와 보호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피득(A. A. Pieters), 1898

75 (번호 47) **주어 우리 무리를** 원조주
 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피득(A. A. Pieters), 1898

7 1898년

조선말로 옮긴 시편

전도 활동과 함께, 피터스에게는 또 하나의 큰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을 조선말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어릴 적 히브리어를 배웠던 피터스에게, 구약성경 번역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1898년, 피터스는 시편 62편을 번역한 『시편찰요』를 출판했습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구약성경 한국어 번역본이었습니다.

유대인 소년으로 태어나 히브리어를 배웠던 그 시간들이, 이제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라 말로 읽을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영원이 살지어다... **데이십삼편** 다빛이 지은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셨스니 내게 부족함이 업스
 리로다... **데이십삼편** 다빛이 지은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셨스니 내게 부족함이 업스
 리로다... **데이십삼편** 다빛이 지은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옮긴 번역한 시편찰요 본문

신학교와 새 가정

전도자로서 더 깊이 있는 사역을 하고 싶었던 피터스는 1899년 가을, 미국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한 피터스는 1902년 신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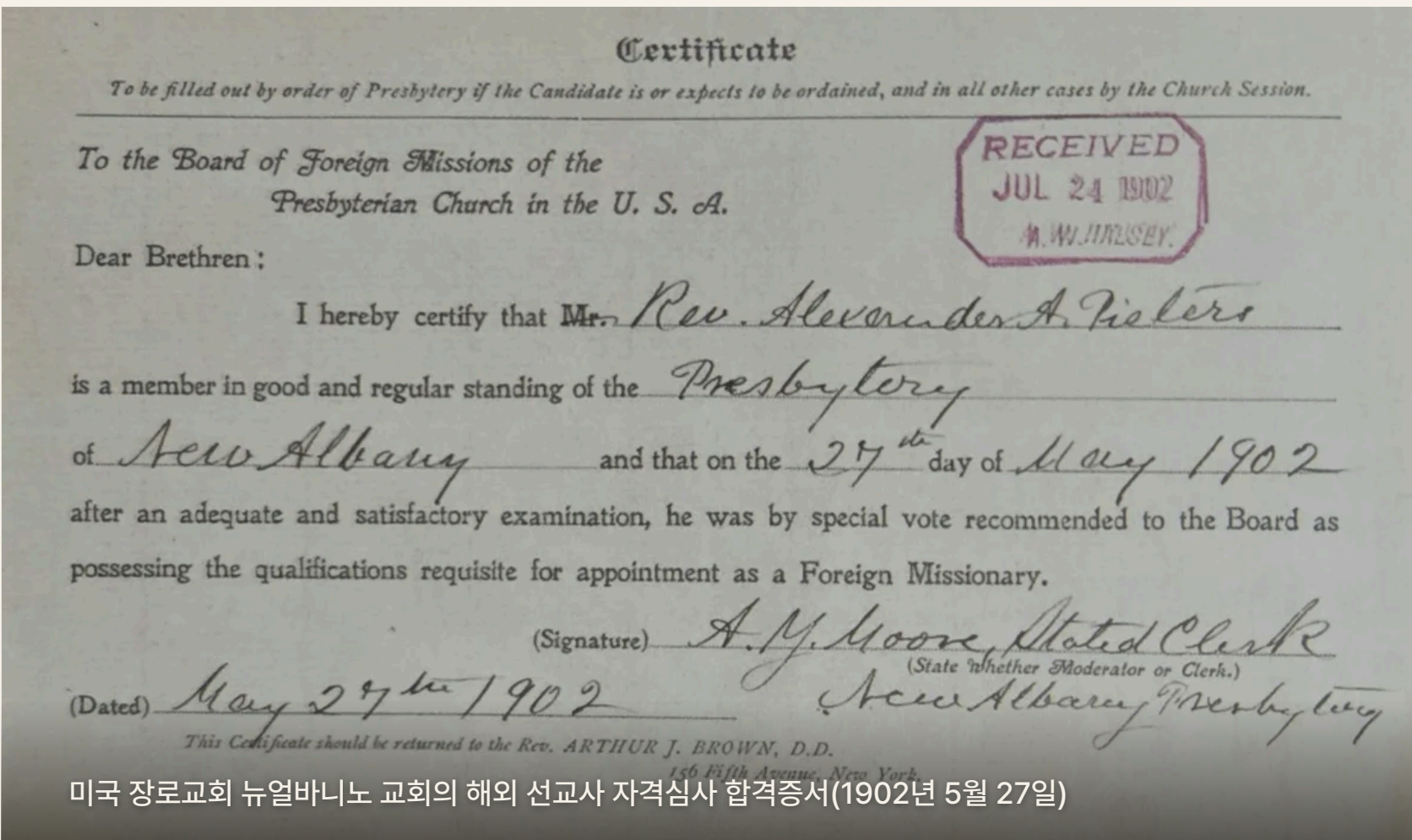
같은 해, 피터스는 미국 장로교회에서 정식으로 선교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권서인이 아니라 어엿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 엘리자베스 캠벨이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배움을 마치고, 가정을 이루고, 선교사의 자격까지 갖춘 피터스. 이제 그는 조선으로 돌아갈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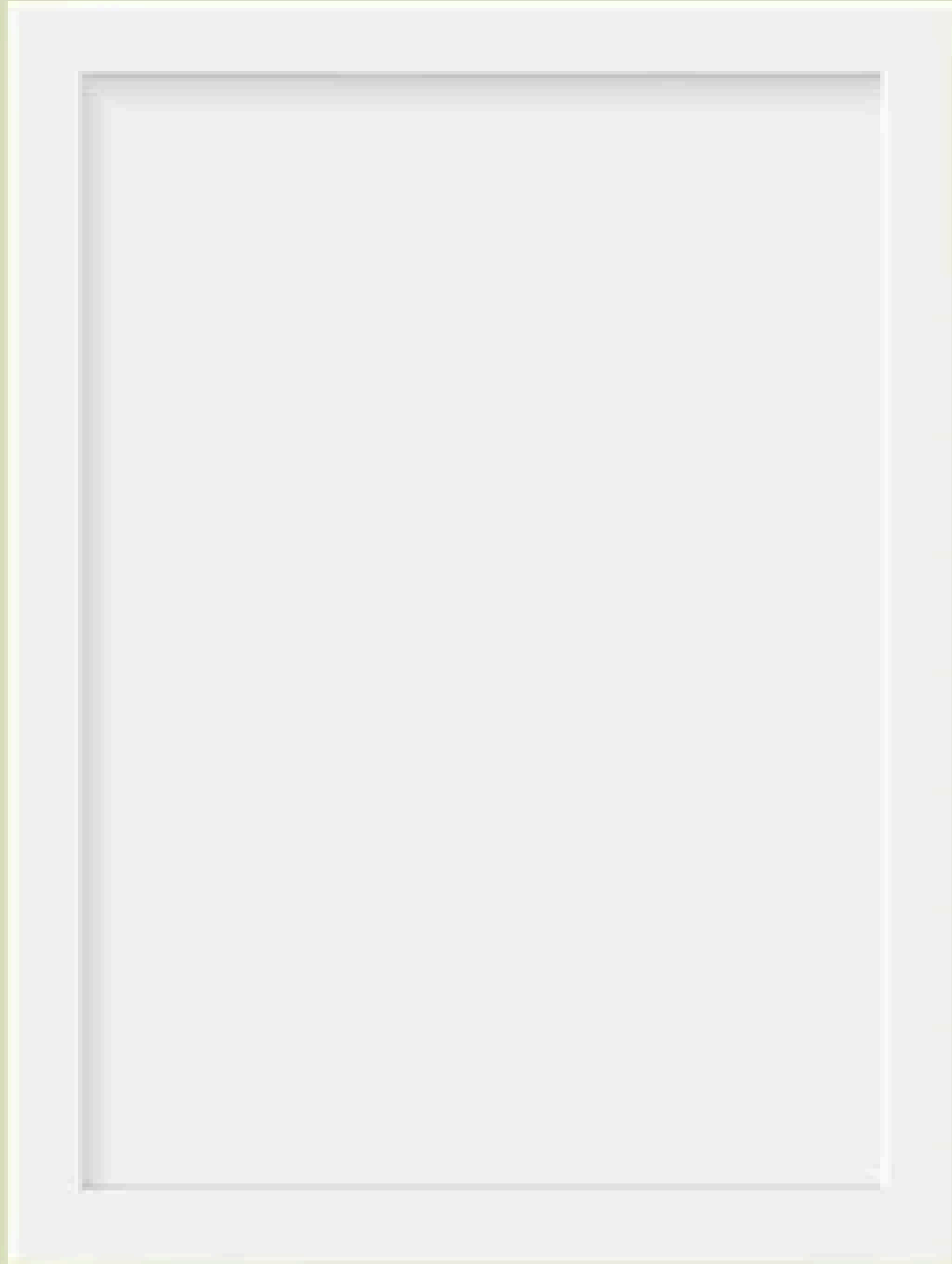


시카고 맥코믹 신학대학 old campus

158.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Chicago.
you is everything.
I wait until you get
my mind long letters
I think you for that lovely part



미국 장로교회 뉴얼바니노 교회의 해외 선교사 자격심사 합격증서(1902년 5월 27일)



김준현 장로님의 사진을 찾습니다

9 1903년 10월

송파에 세워진 첫 예배당

피터스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사이에도, 조선 땅 광주군 송파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뿌려진 씨앗이 마침내 열매를 맺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피터스와 조사 김덕윤, 유흥렬의 전도활동의 결과, 송파 출신의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준현이었습니다.

당시 송파에는 구세군이 3년여간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송파 출신으로 열심히 활동하던 윤귀삼이 김준현과 협력하여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후 구세군은 철수하였습니다.

이렇게 1903년 10월, 마침내 송파에 첫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피터스가 조선 땅을 처음 밟은 지 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0 1904년 9월

다시 조선으로

1904년 9월, 피터스는 정식 선교사의 신분으로 다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권서인이 아니라, 서울 남쪽 지역의 교회 개척을 책임지는 선교사로서였습니다.

피터스는 서울 남쪽 지역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약 20개에 이르는 소규모 회중을 세워 나갔습니다. 송파교회 역시, 이제 막 걸음마를 댄 그 작은 회중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전도하고 있는 외국인 선교사



양화진에 잠든 아내 엘리자베스 캠벨

11 1906년

슬픔 속에서도 자라나는 믿음

하지만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06년 1월, 피터스의 아내 엘리자베스 캠벨이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서른셋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녀는 서울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잠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피터스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송파교회에는 작은 소학교(여학당)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학교는 훗날 중대국민학교의 모태가 됩니다.

슬픔과 기쁨이 함께 있던 1906년. 한 사람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지만, 그가 조선 땅에 심은 믿음은 이렇게 학교라는 또 다른 씨앗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맺음말

뿌리는 깊어지고

드니프로강가의 유대인 소년 아이삭 프룸킨은, 이제 조선 땅에서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서른다섯 해를 살아왔습니다. 낯선 땅에서 아내를 잃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가 뿌린 믿음의 씨앗은 송파의 작은 예배당과 학교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송파의 작은 예배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로 이어집니다. 첫 신자 김준현, 그리고 그와 함께 예배당을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음 편에서 펼쳐집니다.

TO BE CONTINUED

— 2부 「첫 신자, 김준현」 에서 계속 —



세곡교회.jpg



내곡교회.jpg



심곡교회1.jpg



송파교회
SINCE 1903